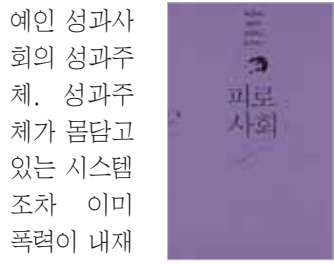


문화

행복한 책임기

한병철의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펴냄)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 K씨! 새벽 5시 기상, 휘트니스센터에서 운동, 웰빙식 아침식사, 7시 출근, 8시까지 경제신문 및 주요 신문 탐독, 월간·주간·일간 목표 주주 후...



에인 성과사회의 성과주체, 성과주체가 몸담고 있는 시스템조차 이미 폭력이 내재되어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다름없다. 사회는 오래전에 신념을 잃었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주인이자 노예

현대사회는 성과사회이다. 직장인들은 실적을 위해 몸부림치고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새벽까지 과외를 한다. 성과는 개인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 사회는 성공해야 한다는 구호가 유일한 강압이며 규율이다.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등의 신경성 폭력을 낳는다. 사회는 야생동물의 경계 태세와 같은 주위구조를 생산한다. 점점 수렵사 유구역과 유사한 곳이 된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면서 주인이자 노예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10월25~28일 '정율성 축제' 일정·출연진 확정

20년 한중교류 의미 담는다

오는 10월25일~28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오! 광주-정율성 축제' 공식 일정과 출연진이 확정됐다.

르파티에의 오페라 '루지' 중 '그날 이후'와 정율성곡 '연수요'를 들려준다. 26일의 연주자는 지난 2000년 창단된 유명 실내악 그룹 MIK 앙상블이다.

라와 더블베이스를 위한 군대 행진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곡 송어', 슈만의 '피아노 4중주곡 작품 47' 등이다.

지휘자 리 신차오-광주시향 호호, 클라라 주미 강 협연

오스트리아 인형극 '마술피리'·MIK 앙상블·성민제 출연

니스트 권혁주씨 등 10년 인연을 맺어온 기존 멤버 외에 이번 공연에는 쿠세비츠키 더블베이스앙상블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한 국내 대표 더블베이스 연주자 성민제씨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한다.

르트 마술피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대표적인 마리오네트 극장 중 하나로 세계인형예술축제 1위를 수상한 오스트리아 쉐부룬궁 마리오네트 극장 작품으로 칼 베히만 지휘봉을 잡은 베를린 필하모닉과 리아스 실내 연주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비올라와 더블베이스를 위한 군대 행진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곡 송어', 슈만의 '피아노 4중주곡 작품 47' 등이다.



리 신차오



클라라 주미 강

합창단의 음반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된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아트스페이스에서 소프라노 손숙경·오송하·김선희·김미옥, 테너 김백호·김성진, 바리톤 이은철씨 등이 출연하는 정율성가곡 연주회가 열리며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중국허난성 공연단 초청, '한중문화교류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그밖에 2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는 정율성 국제 학술 세미나도 열린다.

티켓 가격은 2만원, 1만5000원, 1만원이며 티켓 판매 사이트 인터파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 청화백자 뉴욕경매서 36억원에 낙찰

뉴욕 크리스티 경매가 1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연 아시아아트 경매에서 한국 미술품들이 대거 출품돼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최고가인 198만6500달러(약 22억 4470만원)에 낙찰됐다. /연합뉴스

최고가를 기록한 다섯발톱 용문 청화백자(사진)는 321만8500달러(약 36억3700만원)에 팔렸다.

속중 때 왕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항아리의 당초 예상가는 200만 달러였다.

용의 발톱이 다섯개(五爪龍, 오조룡)로 그려진 이 청화백자는 60.5cm x 43cm의 대형 항아리이다. 또 박수근의 '나무와 세 여인' 역시

아시아 창작시나리오 공모전 대상에 '알파미시'

우즈베키스탄 영화 시나리오 '알파미시'가 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국제 공모전에서 대상(상금 2000만원)인 아시아 스토리텔링위원장상을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영웅 서사시를 토대로 민족에 대한 애정과 연인에 대한 사랑 등을 그려냈다.

공모전은 아시아의 다양한 신화·드라마·한국) '웨스트트라이프, 페리 그리고 마미아'(고틀라프바 이리나·영화·카자흐스탄) 등이 선정됐다. '여성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 세계 118명의 여성 작가 작품을 한 데 모았다.

공모전은 아시아의 다양한 신화·드라마·한국) '웨스트트라이프, 페리 그리고 마미아'(고틀라프바 이리나·영화·카자흐스탄) 등이 선정됐다. '여성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 세계 118명의 여성 작가 작품을 한 데 모았다.

드자수르 이스하코브와 마스투라 이스하코바가 함께 쓴 '알파미시'는

공모전은 아시아의 다양한 신화·드라마·한국) '웨스트트라이프, 페리 그리고 마미아'(고틀라프바 이리나·영화·카자흐스탄) 등이 선정됐다. '여성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 세계 118명의 여성 작가 작품을 한 데 모았다.

'학생들이여 현재를 즐겨라'

유덕중 교사·학생, 13~14일 '죽은 시인의 사회' 공연

'카프케 디엠(현재를 즐겨라)'이라는 대사로 잘 알려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와 그를 믿고 따르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며 함께 만든 뮤지컬 '죽은 시인의 사회'를 13일(오후 2시·4시), 14일(오후 7시) 광주학생교육문화관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유덕중(교장 권도연)교사와 학생이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리며

교사 김철욱씨가 연출을 맡은 이번 작품에는 킴민 선생님 역의 박홍균 교사를 비롯해 홍여진·김종현·박상준씨 등 교사들과 강진

전 세계 여성작가들의 독특한 시각

'국제여성미술제' 26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다양한 현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확고한 자기 세계를 구축하면서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 세계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독일·러시아·미국·프랑스 등 10개국 61명 여성 작가들도 작품을 내놓았다.

공모전은 아시아의 다양한 신화·드라마·한국) '웨스트트라이프, 페리 그리고 마미아'(고틀라프바 이리나·영화·카자흐스탄) 등이 선정됐다. '여성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 세계 118명의 여성 작가 작품을 한 데 모았다.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점 등으로 미국과 러시아 작가만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해외 작가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다. 전시에 맞춰 직접 광주를 찾은 외국 작가도 42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국내에서는 광주 출신 40명을 비롯, 57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중국·대

섬세함으로 대표되는 여성성이 두드러지는가 하면, 지역성과 페미니즘, 다원주의 등을 나름의 독특한 시

아·김철구·정다은·김기애·윤혜인·이원균 등 10여명의 학생이 출연한다.

난생 처음 연기를 접한 출연진들은 뮤지컬의 특성상 노래와 춤까지 함께 배우며 작품을 준비했다.

이번 작품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교육선도지원청으로 광주서부교육청이 지정된 후 유덕중이 뮤지컬 분야 지정 학교로 선정돼 기획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순아 작 '시간으로의 여행'

각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미흡점은 이번 전시가 전 세계 여성작가들간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여성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062-222-8053,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a 30% OFF SALE and a 40% OFF SALE. Includes logos for Naver, Hong79.com, and various store locations. Text: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이태리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천구닷컴)', '2012 결산 빅세일 10월25일까지'.